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46호 [루체 제23098호] 주제99 (2010)년 5월 26일 (수요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자

경공업혁명을 추동하는 힘있는 조직정치사업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조직
들의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
려 당경제정책관련에 대
중을 끊임으로 조직동원하는 것
입니다.』

을해 공동사설과 공동구호를
높이 밟들고 전국의 모든 경공
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려고 있다.

전당적, 전국적인 힘을 집
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
적으로 늘리며 대한 당의 의도
를 높이 밟들고 각지 당조직들
에서는 경공업부문의 공장들을
개건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
서 정상화해 나가도록 조직정
치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경공업
부문의 모든 경제지도일군들로
하여금 경제발전의 앞날을 내
다보는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
고 모든 일을 대단히加倍작전
하고 치밀하고도 능동적으로 전
투지 힘을 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함으로써 모든 경공업

공장들이 인민소비품생산전투
로 뜻깊게 하고 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도
안의 모든 경공업공장들에서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생산정상
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려
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김책시를 비롯한 시,군의 지
도안의 경공업공장들의 설비를 현대화
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초하여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한 대단한 착작을 펴고자
보장대책을 펼쳐고자고들도
록 당당히 힘있게 펴밀어
주고 있다.

사리원에 국수지일용품공장
과 사리원방직공장, 사리원신
발공장에 내려간 도당책임일군
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우리에 모든 인민
소비품이 차례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
랑과 은정을 대중의 심장에
더욱 깊이 새겨주면서 대단
하게 서비스를 개신하고 생산
을 정상화해 나가도록 힘있게
고무하고 있다.

도당위원회는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판부문 일군들
에서는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갖자지식료품과 생활

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
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으며 있
는 설비, 있는 자체로 인민소
비품을 더 많이, 더 질좋게 생
산하는 전례 없는 양상을 일으
키고 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김책시를 비롯한 시,군의 지
도안의 경공업공장과 신의주
신발공장,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경공업공장들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인
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경공업혁명의 불
길이 세우고 질좋은 인민소
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경공업혁명방침
을 평가해나가고 있다.

도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
위원회일군들은 알록강종합식
료공장을 비롯하여 도안의 경
공업부문 공장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그들의 비상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제기되
로 향상시키려는 당의 의도를
높여 주면서 서비스를 도적인 사업
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하고 있다.

도당위원회는 도안의 경공업공장
에서는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갖자지식료품과 생활

필수품들을 질적으로 생산하
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다.

평양시와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도 경
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
소들에게 경공업제품 생산목표
를 높여 세우고 질좋은 인민소
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경공업혁명의 불
길이 세우고 질좋은 인민소
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경공업혁명방침
을 평가해나가고 있다.

『당과 수령을 알고 선군조선의 양심 뿐만 아니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심장으로 체득하여 언제나 백두산을 가슴에 암고 강성대국의 영마루를 향하여 완강하게 돌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백두산이 웅장하고 영원하듯 백두의 천불명장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은 무한대이다.』

백두의 기상과 탐력으로

완강한 공격정신을 지닌 백두산형의 위인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백두의 공격정신,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굴의 기상이 어려웠고 우리 조국

의 존엄과 강대성의 근본원천이 있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심장으로 체득하여 언제나 백

두산을 가슴에 암고 강성대국의 영마루를 향하여 완강하게 돌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백두

산이 웅장하고 영원하듯 백두의 천불명장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은 무한대이다.』

◆ 백두의 공격정신은 선군조선의 대교조
기상이다.

지금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
기를 펼칠 휘날리며 그 어떤 『난공불락』의
의도로 전개하여 백두산을 향해나가고 있다.

『당과 수령을 알고 선군조선의 양심 뿐만 아니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백두산형의
존엄과 강대성의 근본원천이 있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심장으로 체득하여 언제나 백

두산을 가슴에 암고 강성대국의 영마루를 향하여 완강하게 돌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백두

산이 웅장하고 영원하듯 백두의 천불명장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군대의 일당백

속도는 백두의 공격정신의 거세한 출발이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사상과 정신을 그대로
체현한 인민군대처럼 강의한 공격기질로 계속
혁신, 죽전진해나갈 때 뛰어들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여기에 김일성조선,

백두산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파악하며
강성대국으로 속초구 오르는 지름길이 있다.

모두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대고조적전장들

마리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

세멘트생산기지들에 만부하의 동을 드높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견재공업부분에서는 자
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
신을 발휘하여 지금 있는 세
멘트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며 새로운 세멘트공장을

을 전망성 있게 건설하여 세
멘트생산을 더 빨리 늘여야
하겠습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와 천
내리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오늘의 총공격전에
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가
능의를 안고 련현승천공, 련
속발파를 틀어이어 석회석생산
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글착기와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여 운반을
따라세우고 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
신을 발휘하여 전국에 걸친
세멘트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
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함기집업소에서

보낸 편지의 사상과 정신을 김
정일동지께서는 한편 선전선동
상에서 세멘트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
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
휘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가고 있다.

함기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
계급은 당창건 65돐을 맞는⁶
는 당원들에 대한 당의 방침
을 철저히 펼휘하여 인민
소비품생산에 새로운 전
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을 비롯한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
을 생산하였다. 염주군, 선
천군, 통천군에서는 인민
소비품생산에 대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
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동음을
높이울려나가고 있다.

원료원천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
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
며 이주군에서는 인민소비
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이불장,
한장, 학습장, 80여종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통천군
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대
중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조직동원하여 생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팔레스티나 민족정권 전총서장, 제하이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도이칠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드니아사회의 회장, 채리오피아, 에파드로의 정경,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자치 및 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또한 수리아이란공화국 군대 및 무장부총사령관 국방상, 슬로베

스피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국제김일성기금 회장, 로씨엔, 엔, 에쓰, 나제주니나명청 국립아카데미야 베로즈까무용단 단장과 지배인비롯하여 로씨엔, 말레이시아, 만마,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로드니아, 벨라루시, 스위스, 스웨덴, 체스코,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나이제리아, 에티오피아, 에파드로의 정경,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자치 및 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독창적인 선군혁명형도로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회세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은 만방에 빛나고 있다고 축전과 축하편지를 강조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형도 따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군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정책에 담아

세상에는 우리 당과 같이 창건 첫날부터 오늘은 있는 장구한 기간 단 한번의 혼선상으로도 없이 오직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 온 혁명적인 당은 없다.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어민위천의 뜻을 이어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혼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를 떠나게 실현하시여 위대한 당의 존엄을 높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적인 불멸의 업적을 넓어갈수록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였다. 제방우에 서있는 한

장원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부르시며 무슨 일을

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치자

예견성 있는 작전과 능숙한 지휘

파산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지원로력을 빙자 않고 모내기 성과를 계속 확대하여 당창건 6·5 낫을 맞는 뜻깊은 울해 농사의 보다 밝은 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이 군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는 일군들의 예견성 있는 모내기 전투작전과 능숙한 지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때사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면한 모내기 전투문제를 토의 하던 날 군책임일군은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울해의 봄날씨는 폐년에 없이 불리합니다. 그런 것 만큼 모내기 일정계획을 지난 시기보다 더 높이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일군들이 서로의 의문의 눈길을 주고받자 군책임일군은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울해의 봄날씨는 좀처럼 예측하기 어렵다.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도 있을 것이다. 바쁘다고 밭동에 떨어진 불을 끄는 식으로 날씨가 불리한 날에 모내기 하면 절을 물론 속도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정주시 세마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써례치기를 확고히 앞세워 놓고 모내기 속도도 뿐 아니라 높여나가고 있다.

농장원들이 들어간 일군들은 써례치기를 앞세우는 것이 모내기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농장원들을 적극 불리워이고 있다. 일군들은

파산군

다. 모내기를 적기에 안전하게 결속하자면 예전처럼 일정계획을 보다 높이 세우고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

사실 군책임일군이 모내기 일정계획을 보다 높이 세우자고 주장한데는 까닭이 있었다.

모내기철이 다가오면서 어느 날 군안의 농장별들을 돌아보는 군책임일군의 마음은 흐뭇하였다.

그 어느 농장, 작업반의 행상모판들을 보나 봐도 이를 실하게 자라기 때문이었다.

이만하면 열미는 모내기 철에 계획된 날에 시작할 수 있다면 생각을 앞세워 로하협동농장으로 향하던 그는 어느 한 작업반 모판들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농장일군들이 반듯하게 써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다. 군책임일군은 그들에게다가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오늘과 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별일 없겠지만 비비리기 부는 날에 모내기 힘을 하면 벼모가 물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책임일군은 이를 사실을 스쳐지지 않았다.

이 농장이라고 뮤달리 조건이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비결은 무엇인가.

군책임일군은 이 농장에 내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

일군들의 사업에서

높이 세운다면?)

그가 이런 생각을 내비치자 농장일군은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이면서 대중의 양양된 열의를 불러일으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이었다. 농장일군의 신심에 넘친 말들은 군책임일군은 모내기 일정계획을 보다 높이 세울 결심을 굽히게 되었다.

모든 사업을 알게 된 군일군들은 모내기 힘을 성과적으로 해내자면 예전처럼 일정계획을 보다 높이 세워야 한다고 하면 그 어느 농장, 작업반의 행상모판들을 보나 봐도 이를 실하게 자라기 때문이었다.

이만하면 열미는 모내기 철에 계획된 날에 시작할 수 있다면 생각을 앞세워 로하협동농장으로 향하던 그는 어느 한 작업반 모판들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농장일군들이 반듯하게 써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다. 군책임일군은 그들에게다가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오늘과

농기계들의 가동률이

높아지니 모두가

성수가 나서 더 많은 일을 해석을 올렸다.

군일군들이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지 못해 사람들은 걱정부터 앞세우고 하였다. 이로부터 군일군들은 지대적인 특성과 조건에 맞게 봄보장대책을 빙의해 세우도록 하였다.

모내기 일정계획을 보다 높이 세울 때마다 미리 너너하게 마련한 것였다.

결국 모내기 성과가 오르면서 비결은 이곳 일군들이 요구성을 높이 세워야 한다고 하면 그 어느 농장, 작업반의 행상모판들을 보나 봐도 이를 실하게 자라기 때문이었다.

군일군들의 사업에서 공정할 한 다른 한 가지는 요구성을 높이 세워 조건보장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불러일으킨 것이다.

모내기 철과 함께 일정계획을 보다 높이 세워야 한다고 하면 그 어느 농장, 작업반의 행상모판들을 보나 봐도 이를 실하게 자라기 때문이었다.

군일군들은 지대적인 특성과 조건에 맞게 봄보장대책을 빙의해 세우도록 하였다.

모내기 일정계획을 보다 높이 세울 때마다 미리 너너하게 마련한 것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군일군들은 봄보장대책을 높이 세워 모내기 힘을 증명하고자 앞세우고 하였다.

</

조국을 지켜선 병사들을 위하는 뜨거운 심장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
서 선군정치를 높이 밸고
인민군인들을 친절히 대우하
고 사랑하고 물질상으로 성
의껏 원호하도록 하여야 합
니다.』

원군, 이것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원군은 최
대의 애국이며 원군길에 당의
선군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들이 가는 전시의 깊이은 삶과
영애와 보람이 있다는 확고한
인생관을 지니고 원군사업을
힘 있게 벌리고 있는 우리 인민.

그러한 사람들은 일군
군인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원
호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
을 드리고 우리 사회의 군민대
단결을 백방으로 다지는 적극
기여하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함께 군도 있다.

며칠 전 어느 날 한강의 편지
를 마주하고 않은 학교 기업소
지배인 장원군동무의 마음은
무척 기뻤다.

『기기하십시오. 동지들의
진실된 방조가 있었기 때문에
경애하는 최고시령판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기일을 앞당겨 훌
륭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성대국
건설전대의 전선들에서 더 많은
대상설비를 요구하고 있는 이
때마다 바쁘고 긴박한 속에서
도 우리들을 성의껏 도와준 동
지들이 그 진정에서 부대장병들
을 힘들게 했지만 힘과 욕지를
절절한 당부를 읽었습니다.

동지들의 그 마음을 언제나
잊지 않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를
반드는 길에서 우리 언제나 한
소들의 대보수에 필요한 대상
설비 생산으로 들끓고 있었다.
일군들은 오늘 협의회에서도
생산이나 기술혁신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될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그러면서도 여느때와
같이 협의회장소를 협연소
개설로 정한 군님께서 저 사건
에 대해 하신 추억 깊은 말씀을
동무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임
이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송수화
기기를 들고 전화번호를 눌러나
갔다. 그러다 송수화기를 놓
고 말았다. 어제 아침 출장을
떠난 빤합기업소당원위원회 책
임비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는 생각이 뒤늦게 떠올랐던
것이다.

기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
이 있어도 늘 머리를 맞대고
마음도 뜻도 함께 나누는 책임
비서, 더욱이 인민군대를 위한
일이라면 천리도 달려가고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그였다.

『책임비서동무에게 알면 얼마
나 기뻐하겠는가. ...』

이런 생각을 하며 사무실을
나선 그의 발걸음을 벼르처럼
기企业发展의 혁신소개실로 향하
였다. 초소에서 감시의 편지가
날아와 때마다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기업소에서는 책임일군들로부터
나어린 기증기운을 풍처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낫고 밤을
가리지 않고 뛰고 또 뛰고 있었
다. 바로 그러한 때에 원군사
업과 관련한 현 협기업소적인
일군들의 긴급협의회가 소집되
었던 것이다. 협의회에서 지금
인민군대의 한 구분대에서 전
투련강화와 문화정서생활에 절
실히 필요한 설비때문에 고심
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보낸 자주자는 것이다. 현
행생산만 보장하자 해도 눈코
뜰새없는 우리 기업소에서 설
사 그것을 맡아하지 않는다 해도
누가 찾을 사람은 없다. 그
러나 원군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생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책임비서 희용동무의 목소리는
협의회참가자들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고피들었다.

책임비서에게 이어 지배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국이 있고야 강성대국건
설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기업소에서는 원군
비행기 세차게 불어쳤다. 기업
소에서는 기술혁신에 더 큰 힘
을 넣어 자재를 적극 절약할뿐
아니라 유후자재를 찾아내기
위한 사업도 힘 있게 벌리었다.
어느 날 기업소내를 돌아보던
지배인은 접심식사시간에도 쉬
지 않고 연평을 파헤쳐며 유후
자재를 수집하고 있는 김숙동무
를 비롯한 기계직장 일군들
과 동무들을 보게 되었다.
지배인은 직장장을 비롯한
동지들이 손을 드롭게 잡으며
하려는 장군님께서 저 사건
에 대해 하신 추억 깊은 말씀을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았다.

무엇이 더 필요하면 한밤중
에 수백 리길을 달려가 마련해
놓았던 일군들의 가슴속
에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성령을 김정숙여러분과 함께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번
이나 꽂셨으며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제2중장군학교 반장 김병
윤동무가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도 기업소는 지난해 1
월 기업소를 찾으시여 대안의
제작제작을 전후 맨주먹으로
허리를 가지고 부장조국을 일
마세우던 그 정신, 그 기백으
로 풍총경을 벌려 밀려진 전
투파제를 2배, 3배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강성대국문을
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
음을 짐장마다에 새겨안고 그
어느 때보다 힘찬 투쟁을 벌려
나가고 있다. 기업소에는 할 일
이 많고 많지만 일군들과
동계급은 원군길을 면함없이
조국방위초소에 전하여졌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지난
간 헌기企业发展에서는 원군사업
을 꾸밀수록 전투력을 강화하고
부대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군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
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
나날에는 평양시 10만세대
집집간길에 펼쳐나선 군인전
설자들을 돋기 위하여 그들에
게 절실히 필요한 설비들을 만
들 때 수백 리 멀리를 달려가
작업을 하여온 것이다. 원군
비행기 세차에 소재들을 구해
온 편협기업소책임일군에 대한
본사기자 장은영

전호에서 어깨걸고 싸워나갑
시다.』

벌써 몇 번째로 읽어보는 편지
였다. 하지만 그는 초소에서 보
내오는 이런 편지를 읽을 때가
제일 기뻤다. 이제는 이런 감사
의 편지를 수백 통나마 읽어보는
그였지만 그때마다 기쁘보다 먼저
새로운 힘과 열정이 북받치
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송수화
기기를 들고 전화번호를 눌러나
갔다. 그러다 송수화기를 놓고
말았다. 어제 아침 출장을
떠난 빤합기업소당원위원회 책
임비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는 생각이 뒤늦게 떠올랐던
것이다.

기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
이 있어도 늘 머리를 맞대고
마음도 뜻도 함께 나누는 책임
비서, 더욱이 인민군대를 위한
일이라면 천리도 달려가고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그였다.

『책임비서동무에게 알면 얼마
나 기뻐하겠는가. ...』

이런 생각을 하며 사무실을
나선 그의 발걸음을 벼르처럼
기企业发展의 혁신소개실로 향하
였다. 초소에서 감시의 편지가
날아와 때마다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기업소에서는 책임일군들로부터
나어린 기증기운을 풍처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낫고 밤을
가리지 않고 뛰고 또 뛰고 있었
다. 바로 그러한 때에 원군사
업과 관련한 현 협기업소적인
일군들의 긴급협의회가 소집되
었던 것이다. 협의회에서 지금
인민군대의 한 구분대에서 전
투련강화와 문화정서생활에 절
실히 필요한 설비때문에 고심
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보낸 자주자는 것이다. 현
행생산만 보장하자 해도 눈코
뜰새없는 우리 기업소에서 설
사 그것을 맡아하지 않는다 해도
누가 찾을 사람은 없다. 그
러나 원군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생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책임비서 희용동무의 목소리는
협의회참가자들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고피들었다.

책임비서에게 이어 지배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국이 있고야 강성대국건
설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기업소에서는 원군
비행기 세차에 불어쳤다. 기업
소에서는 기술혁신에 더 큰 힘
을 넣어 자재를 적극 절약할뿐
아니라 유후자재를 찾아내기
위한 사업도 힘 있게 벌리었다.
어느 날 기업소내를 돌아보던
지배인은 접심식사시간에도 쉬
지 않고 연평을 파헤쳐며 유후
자재를 수집하고 있는 김숙동무
를 비롯한 기계직장 일군들
과 동무들을 보게 되었다.
지배인은 직장장을 비롯한
동지들이 손을 드롭게 잡으며
하려는 장군님께서 저 사건
에 대해 하신 추억 깊은 말씀을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았다.

무엇이 더 필요하면 한밤중
에 수백 리길을 달려가 마련해
놓았던 일군들의 가슴속
에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성령을 김정숙여러분과 함께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번
이나 꽂셨으며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제2중장군학교 반장 김병
윤동무가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도 기업소는 지난해 1
월 기업소를 찾으시여 대안의
제작제작을 전후 맨주먹으로
허리를 가지고 부장조국을 일
마세우던 그 정신, 그 기백으
로 풍총경을 벌려 밀려진 전
투파제를 2배, 3배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강성대국문을
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
음을 짐장마다에 새겨안고 그
어느 때보다 힘찬 투쟁을 벌려
나가고 있다. 기업소에는 할 일
이 많고 많지만 일군들과
동계급은 원군길을 면함없이
조국방위초소에 전하여졌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지난
간 헌기企业发展에서는 원군사업
을 꾸밀수록 전투력을 강화하고
부대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군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
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
나날에는 평양시 10만세대
집집간길에 펼쳐나선 군인전
설자들을 돋기 위하여 그들에
게 절실히 필요한 설비들을 만
들 때 수백 리 멀리를 달려가
작업을 하여온 것이다. 원군
비행기 세차에 소재들을 구해
온 편협기업소책임일군에 대한
본사기자 장은영

이야기며 기업소의 한 종업원
의 아들이 표장휴가를 미치고
초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
하여 안겨준 일군들에 대한 이
야기 등 원군과 더불어 꽂혀져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았다.

무엇이 더 필요하면 한밤중
에 수백 리길을 달려가 마련해
놓았던 일군들의 가슴속
에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성령을 김정숙여러분과 함께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번
이나 꽂셨으며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제2중장군학교 반장 김병
윤동무가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도 기업소는 지난해 1
월 기업소를 찾으시여 대안의
제작제작을 전후 맨주먹으로
허리를 가지고 부장조국을 일
마세우던 그 정신, 그 기백으
로 풍총경을 벌려 밀려진 전
투파제를 2배, 3배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강성대국문을
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
음을 짐장마다에 새겨안고 그
어느 때보다 힘찬 투쟁을 벌려
나가고 있다. 기업소에는 할 일
이 많고 많지만 일군들과
동계급은 원군길을 면함없이
조국방위초소에 전하여졌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지난
간 헌기企业发展에서는 원군사업
을 꾸밀수록 전투력을 강화하고
부대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군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
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
나날에는 평양시 10만세대
집집간길에 펼쳐나선 군인전
설자들을 돋기 위하여 그들에
게 절실히 필요한 설비들을 만
들 때 수백 리 멀리를 달려가
작업을 하여온 것이다. 원군
비행기 세차에 소재들을 구해
온 편협기업소책임일군에 대한
본사기자 장은영

이야기며 기업소의 한 종업원
의 아들이 표장휴가를 미치고
초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
하여 안겨준 일군들에 대한 이
야기 등 원군과 더불어 꽂혀져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았다.

무엇이 더 필요하면 한밤중
에 수백 리길을 달려가 마련해
놓았던 일군들의 가슴속
에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성령을 김정숙여러분과 함께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번
이나 꽂셨으며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제2중장군학교 반장 김병
윤동무가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도 기업소는 지난해 1
월 기업소를 찾으시여 대안의
제작제작을 전후 맨주먹으로
허리를 가지고 부장조국을 일
마세우던 그 정신, 그 기백으
로 풍총경을 벌려 밀려진 전
투파제를 2배, 3배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강성대국문을
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
음을 짐장마다에 새겨안고 그
어느 때보다 힘찬 투쟁을 벌려
나가고 있다. 기업소에는 할 일
이 많고 많지만 일군들과
동계급은 원군길을 면함없이
조국방위초소에 전하여졌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지난
간 헌기企业发展에서는 원군사업
을 꾸밀수록 전투력을 강화하고
부대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군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
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
나날에는 평양시 10만세대
집집간길에 펼쳐나선 군인전
설자들을 돋기 위하여 그들에
게 절실히 필요한 설비들을 만
들 때 수백 리 멀리를 달려가
작업을 하여온 것이다. 원군
비행기 세차에 소재들을 구해
온 편협기업소책임일군에 대한
본사기자 장은영

이야기며 기업소의 한 종업원
의 아들이 표장휴가를 미치고
초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
하여 안겨준 일군들에 대한 이
야기 등 원군과 더불어 꽂혀져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았다.

무엇이 더 필요하면 한밤중
에 수백 리길을 달려가 마련해
놓았던 일군들의 가슴속
에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성령을 김정숙여러분과 함께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번
이나 꽂셨으며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제2중장군학교 반장 김병
윤동무가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도 기업소는 지난해 1
월 기업소를 찾으시여 대안의
제작제작을 전후 맨주먹으로
허리를 가지고 부장조국을 일
마세우던 그 정신, 그 기백으
로 풍총경을 벌려 밀려진 전
투파제를 2배, 3배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강성대국문을
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
음을 짐장마다에 새겨안고 그
어느 때보다 힘찬 투쟁을 벌려
나가고 있다. 기업소에는 할 일
이 많고 많지만 일군들과
동계급은 원군길을 면함없이
조국방위초소에 전하여졌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지난
간 헌기企业发展에서는 원군사업
을 꾸밀수록 전투력을 강화하고
부대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군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
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
나날에는 평양시 10만세대
집집간길에 펼쳐나선 군인전
설자들을 돋기 위하여 그들에
게 절실히 필요한 설비들을 만
들 때 수백 리 멀리를 달려가
작업을 하여온 것이다. 원군
비행기 세차에 소재들을 구해
온 편협기업소책임일군에 대한
본사기자 장은영

이야기며 기업소의 한 종업원
의 아들이 표장휴가를 미치고
초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
하여 안겨준 일군들에 대한 이
야기 등 원군과 더불어 꽂혀져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았다.

무엇이 더 필요하면 한밤중
에 수백 리길을 달려가 마련해
놓았던 일군들의 가슴속
에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성령을 김정숙여러분과 함께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번
이나 꽂셨으며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제2중장군학교 반장 김병
윤동무가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도 기업소는 지난해 1
월 기업소를 찾으시여 대안의
제작제작을 전후 맨주먹으로
허리를 가지고 부장조국을 일
마세우던 그 정신, 그 기백으
로 풍총경을 벌려 밀려진 전
투파제를 2배, 3배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강성대국문을
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
음을 짐장마다에 새겨안고 그
어느 때보다 힘찬 투쟁을 벌려
나가고 있다. 기업소에는 할 일
이 많고 많지만 일군들과
동계급은 원군길을 면함없이
조국방위초소에 전하여졌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지난
간 헌기企业发展에서는 원군사업
을 꾸밀수록 전투력을 강화하고
부대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군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
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
나날에는 평양시 10만세대
집집간길에 펼쳐나선 군인전
설자들을 돋기 위하여 그들에
게 절실히 필요한 설비들을 만
들 때 수백 리 멀리를 달려가
작업을 하여온 것이다. 원군
비행기 세차에 소재들을 구해
온 편협기업소책임일군에 대한
본사기자 장은영

이야기며 기업소의 한 종업원
의 아들이 표장휴가를 미치고
초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
하여 안겨준 일군

역적폐당이 조작한 《북 어뢰공격설》의 진상을 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리명박역적폐당이 피리해군함선 《천안》호에 대한 《북 어뢰공격설》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분별없는 행동을 감행하려고 횡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그리고 역적폐당이 《천안》호가 우리에 어뢰공격으로 침몰되었다고 선보인 것만은 그에 대한 《물증》을 직접 검열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현지에 파

견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밝혀졌다. 그러나 뒤가 쟁기 역적폐당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소리만 훼치면서 우리 검열단의 현지검열 확인을 한 사고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허황하기 이를 데 없는 역적폐당의 반공화국 모략설에 대해 굳이 헌의 할 일고의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역적폐당이 온 세계가 공감하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미저 거부해 나선것만은 부득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가볍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 《북 어뢰공격설》은 역적폐당이 꾸며낸 허황한 날조설이다

지난 3월 26일 밤 9시 조선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근해에서는 피리해군함선 《천안》호가 원인모르게 두동강이 나침몰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때로부터 50여일이 지난 5월 20일 역적폐당은 그 무슨 《합동조사결과보고문》이라는 것을 통해 《천안》호가 우리의 어뢰공격에 의하여 침몰되었다는 이른바 《북 어뢰공격설》을 세상에 공표하였다.

《북 어뢰공격설》은 합선침몰사건 발생 초기부터 그것을 우리와 억지로 혼란시키기 역적폐당이 꾸며낸 허황한 날조설이다.

지금까지 역적폐당의 조종밑에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증거가 《물증》들이 그를 말해 주고 있다. 그러면 침몰함선의 굴뚝과 선체 절단면에서 검출했다는 《물증》인 《미량의 화약성분》부터 보기로 하자.

역적폐당은 겹출된 《미량의 화약성분》이 위력이 강한 고성능폭약 RDX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 화약이 어뢰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합선침몰이 북의 어뢰공격에 의하여 빚어졌다고 단정하였다.

RDX는 백색의 결정성, 비수용성 강력폭약으로서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 군수 및 공업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남조선도 제외가 아니다.

이러한 고성능폭약 RDX가 사용됐다고 하여 그것을 우리의 어뢰와 관련시키는 자체가 억지이며 합선침몰원인 그와 직결시키는 것은 더욱 더무니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사실 화약성분을 침몰선체와 굴뚝에서 《총출》했다는 그자체도 납득하기 어렵다. 심한 조류에 짚은 엉도록의 바다에 하루이틀도 아닌 수십일간이나 통제로 수장되어 있던 선체와 굴뚝에서 화약성분을 검출했다는 것은 그저 하지 만 생존자들이 합선침몰 당시 그 어떤 화약냄새도 느끼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어민들이 침몰현장에 고성능화약폭약으로 죽은 한마리의 물고기도 인공어초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중언한 것 등은 사람들의 의혹을 자아내게 하고도 남았다.

합선이 침몰된 수역에서는 피리해군과 해병대의 《K-9》와 《KH-1 7 9》 푸사포 등의 실한 사격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피리 《민군합동조사단》의 한 조사 성원은 고정적인 포사격구역인 태백 바다속에 화약흔적이 나올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합선이 직격탄을 맞았는지도 아니고 6~9m 아래 수중에서 폭발이 일어나 배가 두동강이 났다면 갑판위에 있는 굴뚝이나 선체 절단면에서 화약흔적이 나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만약 그 부위에서 화약을 채워 할 정도가 되자면 선체밑 바닥은 적어도 《폭약으로 칠갑이 돼 있어 어울리겠다》라고 하였다.

역적폐당은 이 《미량의 화약성분》이 《북의 것》이라는 발표가 믿어지지 않아 그것을 우리의 피리군이 사용하는 화약과 비교해보았는가 하는 질문에 말문이 막혀 전진공궁하다가 《지문》의 비유로 대내며 《북의 것》이라는 무작정 우겨버렸지만 전문가들이 평한 것처럼 《백여분의 1%》라는 귀미량의 화약성분이 분석에 무슨 신빙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두고 반복해 결과 모략에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고 하는 것이다.

역적폐당은 《북 어뢰공격설》에 의해 《천안》호가 침몰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10개의 전문기사들의 전문가 25명, 군전문가 22명, 폐리 《국회》소속 전문위원 3명, 미국, 영국 등의 외국전문가 24명으로 무언진 《민군합동조사단》과 《국제합동조사단》이 투입되었고 광고하고 있다.

역적폐당은 모략극에 《검출된 화약성분》을 섞어쓰고 무진 애를 썼지만 여론의 반발이 두려워 역적조사를 발표하는데에는 언급도 하지 못하였다.

《북의 어뢰공격》의 또 다른 《물증》으로 들고나온 《합금조각》도 마찬가지이다.

역적폐당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침몰장소 500m 수역을 망가대로 침침한 들판 살살이 되어서 《잔해물수거》는 놀음을 벌리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 끝에 피리들은 갑자기 사건 원인 규명에 절실히 《합금조각》들을 얻어냈다고 공개하였다.

그 《합금조각》들은 어뢰의 외피를 구성하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시움으로 구성된 합금으로 분석되었는데 《7년전에 수거한 북 훈련용어뢰》의 제재일이 일치되어 그것이 궁극에는 《북의 어뢰공격》을 험증하는 《물증》으로 된다고 하였다.

다.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시움의 리용분야는 다양하다.

그들은 북에서는 군사장비에 순서를 매길 때 《1호》, 《2호》라고 하지 《1번》, 《2번》이라고 하지 않는데 하필이면 《1번》이라는 글을 써놓아 《북의 것》이라고 강변할 것이 있는가고 수준에 고였다.

우리는 처음부터 허황하기 이를 데 없는 역적폐당의 반공화국 모략설에 대해 굳이 헌의 할 일고의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역적폐당이 온 세계가 공감하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미저 거부해 나선것만은 부득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가볍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역적폐당이 《천안》호가

의 당사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할 군이 조사를 주도한 상황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은 이미 물건인간것이나 같다.》고 단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세계는 이번 《천안》호침몰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피리군부자체가 잘 알고 있다는데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침몰함선이 정상적인 기동경로를 벗어나 작전수역이 아닌 수심 25m수역에 《좌초위험을 무릅쓰고》

진입한 것도 문제이고 사건 발생 뒤 생존자들을 《정신적스트레스》라는 병이나 병으로 《군기군수도병원》에 진단일원화시키고 일정을 잊지 못하게 함구령을 내린 사실도 우스운 일이며 휴대용전화기를 불수하고 예상외의 접근을 불허하면서 사건 당시의 항적과 교신일자와 활동자료들을 《군기밀보호》를 레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군의 깊은 고민이다. 《로후회》되어 있던 것은 실종자가족들의 주장대로 《자연피로파피》 가능성도 대놓았다.

또한 공기속을 빠르게 비행하는

총관파는 달리 물속에서 서서히 접

근하는 어뢰의 발동기소리를 음향 탐지기들이 감지 못할지 있으며 더

자고수수역의 수심이 매우 얕아지 때문에 잠수정의 기동은 어려운 대신 어뢰는 쉽게 탐지될 수 있다면서 《어뢰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사전발생지점 하나를 놓고 피리군부의 발표가 5차례이상 뒤비뀌고 《천안》호 함장이 처음에는 의

부의 도발이 《전혀 없었다》고

남음이 있다.

사전발생지점 하나를 놓고 피리군부의 일정과 5차례이상 뒤비뀌고 《천안》호 함장이 처음에는 의

부의 도발이 《전혀 없었다》고

남음이 있다.

조사부에 의해 《있었다》로

여러번 되었으며 《검출된 화학성분》

도 초기에는 세계가 다

리용하는 고성능폭약 RDX로부터 나중에는 《로씨야, 중국, 북조선 등에서 사용된다》는 뜻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리들 속에서는

《북관련》이 서서히 그리고 점점

하게 되었고 《작고 빠르게

침몰함선에

의문을 품고 《작고 빠르게

침몰함선에

